

## 頌 壽 詞

— 隱村 李英基 부회장님의 古稀記念 論文集에 부쳐 —

삼가 은촌(隱村) 李英基 부회장님의 古稀를 頌祝 드립니다. 예로부터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하여 古稀를 맞이하기 드문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은 "일흔에는 마음내키는 대로 좇아도 法度를 넘어서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 하여 인생 칠십을 正道에 벗어나는 일이 없는 '人格의 完成'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은촌 선생과 같은 분에게 的確한 말씀입니다.

그 동안 은촌 선생께서 살아오신 생애는 誠實·勤勉·剛直·奉仕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29년 경남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에서 태어나셔서 청량 심상 소학교, 부산 고등 학교를 졸업하신 후, 향리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중, 靑雲의 뜻을 품고 獨學으로 泰山峻嶺과 같은 고등 고시에 挑戰하여 제8회 고등 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신 立志傳의 인물이십니다.

1958년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로 입문하신 후, 대검 특별 수사부 제 1과장, 서울지검 영등포 지청장(現 남부 지청장), 대검 공판부장, 전주 지검 검사장 등 요직을 歷任하신 후, 27년만에 검찰을 떠나 1983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公私 多忙 중임에도 한국교총 교권옹호 위원회 부위원장, 사할린 법률 구조회 이사, 환경 문제 연구 위원회 위원장 등 변호사 단체의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後生들의 龜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행촌 문화원을 창립하여 弘益 人間, 愛國 孝親, 地球 環境을 指向 目標로 땅에 떨어진 道德性 회복과 환경 보호 운동에 率先하고 계십니다.

은촌 선생께서는 국민 보건과 환경 보호에 선구자로서 일찍부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1966년 부산 지검에 재직할 때, 그 당시까지 미개척 분야인 국민 보건을 해치는 부정 식품, 부정 의약품 사범 단속에 착안하여 전담 검사로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하여 악덕 업자에게 경종을 울림과 아울러 전국 각 지검에 보건

부를 창설하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서울지검 영등포 지청장과 전주 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관내 공장들이 매연을 배출시켜 대기를 오염시키고, 각종 폐수와 산업 폐기물을 곧바로 河川에다 放流하고 있던 대기업의 공장 책임자를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구속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고위층으로부터 그들을 석방시키라는 외압을 받고서도 “수출과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공해로 국민들을 전부 병신 만들어 놓고 돈만 벌어서 무엇하겠소. 국민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니오”라고 일언지하에 물리치셨습니다. 1993년 4월에는 울산, 온산 지역의 대기 오염 실태를 현장 조사한 후, 당시 黃山城 환경부 장관을 방문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대책으로 울산 지역 환경관리청 신설, 민간 환경 단체와 주민 참여, 시민 소송 제도(Citizen suits)의 도입, 기업의 환경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제안해서 국정에 반영하여 울산 환경관리청 신설에 초석을 놓기도 하셨습니다.

은촌 선생께서는 항상 자신에게는 嚴格하고 儉素하게, 다른 이에게는 厚德으로 積善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선생의 陰德을 입은 이는 부지기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力著<성실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라는 회고록까지 펴내신 바, 일생을 성실로 一貫하신 지난 歷程을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江湖 諸賢들에게 많은 깨우침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실은 사물의 시작과 끝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誠者는 物之終始니, 不誠이면 無物이니라)”라는 옛 어른의 말씀처럼 은촌 선생은 당신의 성실한 삶으로 實踐 躬行하셨습니다.

은촌 선생 古稀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공로와 업적을 慶賀 드리고, 勞苦를 기리는 뜻으로 후생들이 마음을 모아 古稀 記念 論文集을 펴냄에 그 머리에 일자를 덧붙여 頌壽詞로 擲筆합니다.

1998년 11월

前 韓國 環境法學會 會長  
現 韓國 環境法學會 顧問 金元主 獻詞  
慶北大學校 法科大學 教授